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에 들어감으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룸

(금요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5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4)

영적 전쟁

성경: 엡 6:10-20

I. 교회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전투원이 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주 안에 세 가지 의지, 곧 신성한 의지와 사탄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A.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와 하나를 위해(엡 1:5, 9, 11, 4:3-4, 요 17:21) 몸의 생활 안에서 기능을 발휘함으로써(롬 12:1-2, 빌 1:19)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누리는 것이다(히 10:5-10).
- B. 루시퍼는 자신의 높은 지위와 아름다움에 대한 교만으로 인해 악한 의도를 품게 되었는데, 그 악한 의도가 사탄의 의지가 되었다 — 겔 28:12-19, 사 14:12-15.
- C. 모든 전쟁의 근원은 이러한 의지들의 충돌에 있다. 사탄의 의지가 일어나 신성한 의지를 반대하기 전에는 우주 안에 전쟁이 없었다. 하나님의 천사장인 루시퍼의 반역이 지금 나라들 사이에, 사회와 가정 안에서, 개개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싸움의 시작이었다 — 비 교 계 12:3-11, 갈 5:17.
- D.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각각 신성한 의지와 사탄의 의지를 대표한다. 중대한 문제는 사람이 신성한 의지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사탄의 의지를 선택하느냐에 있다 — 창 2:7-9.
- E. 회개를 통해 사람은 사탄의 의지에서 신성한 의지로, 사탄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돌이킬 수 있다 — 행 11:18.
- F. 성경은 우리가 왕국을 위해 회개해야 한다고 말한다(마 4:17).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상 신성한 의지를 행사하는 것이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회개할 때 사탄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곧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지로 돌이키게 된다.

II.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몸 안에서 전투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 영한동번찬송가 885장(한국 복음서원 찬송가 637장).

- A.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게 되어야 합니다.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 엡 6:10-11.
  - 1.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세게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 자신 안에서는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음을 가리킨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와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만 싸울 수 있다.
  - 2.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는 단체적인 전투원인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위한 것

이지, 몸의 어느 한 지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반드시 몸 안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 엡 6:10-13, 약 4:7, 비교 빌 1:19, 롬 13:12-14, 16:20.

3.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하늘들의 영역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고, 4장과 5장에서는 이 땅에서 그분의 몸 안에서 행하며, 그런 다음 6장에서는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있다.
  4.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것은 그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분의 몸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며, 그분의 능력 안에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에 대항해 싸우는 것이다.
- B. “그런즉 서서, 진리를 여러분의 허리로 두르고” — 엡 6:14상.
1. 여기에서 ‘진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실재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곧 우리의 생활에서 실재화되고 체험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살아 나탄 그리스도 자신이다 — 엡 4:15, 21, 24-25, 요 14:6.
  2. 우리가 허리에 두르는 진리는 사실상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이다. 바울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본과 같아졌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반대와 적대적인 환경에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 엡 4:20, 빌 1:19-21상.
- C. “의의 가슴받이를 착용하고” — 엡 6:14하, 고전 1:30, 렘 23:6.
1. 의의 가슴받이이신 그리스도는 가슴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양심을 보호하신다. 우리를 비난하는 자인 사탄과 대항해 싸울 때, 우리는 피로 정결하게 된 양심, 곧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양심이 필요하다 — 히 9:14, 10:22, 행 24:16.
  2. “그 형제들은 어린양의 피(로) ... 그를 이겼으며”(계 12:11). 사탄의 비난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의해서나 심지어 거리낌 없는 양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린양의 피로 인해서 비난하는 자인 사탄을 이겼다. 나는 의의 가슴받이로 사탄의 비난들로부터 보호받는다.”
- D.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를 신발로 삼아 발에 신고” — 엡 6:15.
1.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고, 사람들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셨다. 이 화평은 우리의 복음이 되었다. 이 화평의 복음은 견고한 기초로 세워졌고, 이 견고한 기초는 우리 발에 신을 수 있게 예비된 것이다 — 엡 2:13-17.
  2. 우리는 화평 안에서 있음으로써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 우리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이나 우리와 다른 믿는 이들 사이의 화평을 잃는다면 싸울 입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 골 3:15.
- E.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그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엡 6:16, 고후 4:13, 히 12:2, 비교 빌 2:13.
1. 불화살은 사탄의 유혹, 제안, 의심, 질문, 거짓말, 공격 등이다. 우리는 이러한 불화살을 꺼 버리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잡아야 한다.
  2. 우리는 굴복되고 부활한 의지로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하여, 주님의 나타나심이 마귀에게서 나온 일을 제거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 고후 4:13, 요일 3:8, 마 16:22-23, 눅 4:39, 마 12:28, 눅 10:17, 19.

3.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함으로, 주님의 죽음이 사탄을 멸망시켰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 히 2:14, 고전 15:54-58, 갈 2:20, 롬 6:3-6.
  4.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함으로, 주님의 부활이 사탄을 부끄럽게 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 골 2:12-15, 20, 3:1, 요 14:30, 빌 3:10, 사 61:10, 스펴 3:4-5.
  5.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함으로, 주님의 승천이 사탄의 권세를 초월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 앰 1:19-23, 2:6, 6:11, 13.
  6. 우리는 실재이시고 살아 계시며 현존하시고 언제든지 쉽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 막 11:22, 계 1:18.
  7.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야 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선하시다. 그분은 우리를 징벌하거나 해치거나 우리에게 손실을 주시려는 의도가 없으시다 — 롬 8:28-39.
  8.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고 항상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시다 — 고전 1:9, 요일 1:9, 딤후 1:2.
  9.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 앰 3:20.
  10.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셔야만 한다 — 비교 살전 5:24, 앰 6:17-18.
  11.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한다 — 앰 1:5, 9, 11.
  12.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는 우리의 실수조차도 선을 이루어 낸다 — 롬 9:19-29.
- F. “구원의 투구(를) ... 받아들이십시오.” — 앰 6:17상.
1. 구원의 투구는 악한 자가 우리 안으로 쏘는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 곧 우리의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투구, 그러한 덮개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2. 사탄은 위협, 근심, 걱정, 두려움, 그밖에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우리 속에 주입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취해서 착용할 수 있는 덮개이다. 이러한 구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다 — 요 16:33.
- G.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 앰 6:17하.
1.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에 있는 여섯 가지 항목 중에서 그 영의 검만이 유일하게 원수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검으로 원수를 산산조각 낸다.
  2. 그 영이시며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원수를 패배시키고 죽이는 공격 무기인 검을 제공해 주신다.
  3. (성경 안에 항상 있는 말씀인) ‘로고스’가 우리에게 (그 영의 현재의, 즉각적인, 살아 있는 말씀하심인) ‘레마’가 될 때, 이 ‘레마’는 원수를 산산조각 내는 검이 된다.
- H.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 앰 6:18.
1. 기도는 하나님의 전투 장비의 일곱 번째 항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다른 항목들을 적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2. 기도는 하나님의 전투 장비이신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바로 기도에 의해 전투 장비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된다.
  3. 우리는 기도에 꾸준히 힘써야 하는데, 이것은 기도가 전쟁, 전투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사탄, 두 편은 서로에게 적대적이며, 제삼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

신 사람들로 구성된다 — 골 4:2, 엡 6:18, 마 26:41, 비교 엡 5:14, 롬 13:11-14.

4. 하나님 편에 서서 사탄에 대항해 싸우려면 우리는 기도에 꾸준히 힘써야 한다. 이렇게 꾸준히 힘쓰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 요일 5:19, 비교 요 14:30, 16:33.
5. 우리는 기도에 꾸준히 힘쓰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기도 생활에 관해서 주님께 서원해야만 한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주님, 저는 이 문제에 대해 필사적입니다. 제가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저를 기도의 영 안에 지켜 주소서. 제가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간과할지라도, 저는 당신께서 이것을 잊지 않으실 것임을 압니다. 기도에 대해서 저에게 거듭거듭 상기시켜 주소서.”
6.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것에는 많은 유익이 있다.
  - a.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둘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골 3:2, 히 7:25, 8:2, 비교 행 6:4.
  - b. 기도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 때맞추어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이다(히 4:16). 우리가 기도함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 은혜는 우리 안에서 흐르고 우리를 공급하는 강이 된다 — 영한동번찬송가 770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557장).
  - c.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할수록 주님과 의 하나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더욱더 누리며, 주님과 더 많은 교통을 갖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보상이인가!

## 사역의 밑거름에서 발췌

### 영적인 원수를 처리하는 전쟁

#### 교회의 책임

1928년에 니 형제님은 영적 전쟁에 관한 첫 번째 이기는 이들의 집회를 열었다. 그 집회에서 악한 자인 사탄이 극도로 폭로되었다. 니 형제님은 우주 가운데 세 가지 의지, 즉 신성한 의지와 사탄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만일 교회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임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투원이 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의지, 즉 세 가지 의도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의지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영원하며 창조되지 않은 것이다. 창조된 존재들인 천사들도 의지를 갖고 있다. 이 천사들 중 하나인 천사장은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했던 우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었었다. 높은 위치와 아름다움 때문에 이 천사장은 교만하게 되었다. 그 교만이 악한 의도를 일으켰고, 그것은 사탄의 의지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인 하나님의 의지에 더하여 두 번째 의도인 두 번째 의지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사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항하여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전쟁의 근원은 이러한 의지들의 충돌에 있다. 사탄의 의지가 일어나 신성한 의지를 반대하기 전에는 우주 안에 전쟁이 없었다. 우주 가운데 이 싸움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천사장의 배역에서 시작되었다. 그 배역은 지금 나라들 사이에, 사회와 가정 안에서, 개개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싸움의 시작이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나라들과 단체들과 사람들 사이에, 심지어는 개개인들 속에서조차도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당신의 이성과 정욕 사이의 내적 전쟁을 체험했을 것이다. 여러 종류의 모든 전쟁은 그 근원이 하나님의 의지와 사탄의 의지 사이의 다툼에 있다.

사탄의 배역과 아담의 창조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경과됐는지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다만 어떤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자유로운 인간의 의지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 때문이다. 위대한 사람은 결코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분이 억지로 사람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분이 아님을 알리셨다. 젊었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자유 의지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사람이 하나님만 따를 수 있도록 창조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하심 때문에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든지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든지 간에 자유롭게 그의 의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나무는 각각 하나님의 의지와 사탄의 의지를 대표한다. 그러므로 동산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를 대표하는 생명나무와 사탄의 의지를 대표하는 지식나무와 사람의 의지를 대표하는 아담으로 이루어진 삼각관계가 있었다. 사실상 생명나무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지식나무는 사탄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각각 의지를 갖고 있는 세 인격, 곧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 있었다.

비록 세 가지 의지가 있었으나 싸움은 다만 두 편, 하나님과 사탄만 관련되었다. 그 중요한 쟁점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지를 택하느냐 아니면 사탄의 의지를 택하느냐였다. 만일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된다면 하나님의 의지가 성취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가 사탄의 의지와 함께 섰다면 사탄의 의지가 최소한 잠시라도 수행될 것이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람의 의지는 사탄의 의지 편에 섰다. 이것은 사람이 사탄을 따를 것을 선택했고 사탄의 의지를 편들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탄은 잠시 동안 승리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 사람은 사탄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의지로, 즉 사탄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돌이킬 수 있다. 복음의 첫 번째 계명은 회개하라는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 계명은 믿고 침례 받으라는 것이다. 구원받기 원하는 죄인들은 누구나 반드시 이 세 가지 계명에 복종해야 한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며 물속에 침례 받아야 한다. 회개한다는 것은 사탄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의지로 돌이키는 것이다. 출생 이후 우리의 의지는 사탄의 의지 편에 서 있었다. 그 이유는 아담이 사탄의 의지를 택했을 때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파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다.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그 왕국을 위하여 회개해야 한다고 말한다(마 4:17).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상 하나님의 의지의 행사이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회개할 때 그들은 사탄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곧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돌아선다. 사람이 사탄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의지로 돌이킨 다음에는 반드시 주 예수님을 믿고 침례 받아야 한다. 침례를 통해 사람은 사탄의 의지인 어둠의 권세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지게 된다(골 1:13).

구원받은 날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전쟁하는 생활이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후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 유월절 어린양을 먹은 후, 그들은 이집트 땅을 나와 군대같이 행진했다. 이는 그들이 유월절 어린양을 먹은 것이 전쟁을 위한 준비였음을 가리킨다. 그들은 전쟁의 분위기 안에서 구원받았다.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싸움이 시작되었다. 바로와 그의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러 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바로의 군대가 패배한 후,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에 대한 그분의 승리로 인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계속 싸우며 나아갔고, 좋은 땅 안에서도 전쟁을 계속했다. 이처럼 그들의 역사는 구원받은 이의 생활이 전쟁하는 생활임을 계시한다.

이미 본 대로 새사람으로서 교회는 진리에 따라 은혜에 의해 행해야 하며, 신부로서 교회는 사랑과 빛 안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의 갈망도 만족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도 반드시 패배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전투원이 되어야 한다. 아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추구하는 이가 주님의 임재를 누릴 때 싸움은 계속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 따라, 은혜에 의해 행하고 사랑과 빛 안에서 살며 사탄의 의지를 정복하기 위해 싸운다.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대적을 패배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것들을 위해 반드시 교회는 새사람과 신부와 전사가 되어야 한다.

### 굳세게 됨

에베소서 6장 10절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게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굳세게 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1장 19절에 있는 능력이란 말과 어근(語根)이 같다. 하나님의 대적을 처리하고 어둠의 악한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려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공중의 모든 악한 영들보다 훨씬 높은 하늘에 앉히신 능력의 강한 권능으로 굳세게 되어야 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세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사탄과 그의 악한 왕국에 대항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자신 안에서가 아닌 주님 안에서만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자신 안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패배하게 된다.

굳세게 되라는 명령은 우리 의지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 굳세게 되려면, 우리는 우리 의지를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해파리같이 의지가 약하거나 흔들리는 사람들이어서는 안 된다. 사실상 가장 잘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의지의 소유자들이다. 다소 사람 사울을 예로 생각해 보자. 그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체포하려고 다마스쿠스로 여행하고 있을 때, 그는 주님께 사로잡혔다. 사울은 그러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강한 회개를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 양심을 보존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의지도 보존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복음 전파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었을 것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어렵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나의 체험에 따르면 나의 복음 전파로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한 의지와 분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러한 의지는 회개할 때 적극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회개는 의지의 행사를 요구한다. 마찬가지로 굳세게 되는 것도 우리의 의지에 관계된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했다(행 2:40). 이 명령은 능동적이면서 또한 피동적인 것 같다. 즉 ‘구원’은 피동적인 것이지만 ‘받는 것’은 능동적인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있는 “굳세게 되어야 합니다.”라는 바울의 명령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도 피동적인 요소와 능동적인 요소가 조화되었다. 주님 안에서 굳세게 되기 위해 우리는 의지를 행사해야 한다.

우리는 4장에서 새롭게 되어야 함(23절)을 보며, 5장에서는 복종해야 함(5:21)을 본다. 새사람이 되려면 새롭게 되어야 하고, 신부가 되려면 복종해야 하며, 전투원이 되려면 굳세게 되어야 한다. 전투원인 우리는 신사나 사랑스런 신부로서가 아닌 사자로서 전쟁에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사람과 신부와 전사가 되기 위해, 새롭게 되어야 하고 복종하며 굳세게 되어야 한다.

주님 안에서 굳세게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없으며, 오직 주님 안에서와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만 싸울 수 있다는 의미이다. 6장 10절에서 바울은 강함과 권능과 굳셈을

언급하고 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신 능력으로 굳세게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과 권능을 안다.

### 하나님의 온전한 전투 장비를 입음

에베소서 6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라는 말로 시작한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투 장비도 필요하다. 우리의 무기는 쓸모없지만 하나님의 전투 장비, 더구나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는 유용하다.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는 몸의 어떤 개별적인 지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한 것이다. 교회는 단체적인 전투원이며 믿는 이들은 다 함께 이 유일한 전투원을 구성한다. 오직 단체적인 전투원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를 입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입을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몸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를 입으라는 말은 명령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전투 장비를 준비하셨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입지는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전투 장비를 우리 스스로 입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굳세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실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의지를 행사하여 그분과 협력해야 한다. 같은 원칙으로, 우리는 전투 장비를 입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협력해야 한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63장, 573-578쪽)